

## *Brill's Encyclopedia of Hinduism*에 대한 서평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도 고전학을 전공하는 필자는 인도의 종교나 철학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로부터 종종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좋은 입을 거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 필자는 매번 거의 똑같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서평을 쓴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보자. 인도문화에 관심이 많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도 현지에서 요가(yoga)를 배운 요가강사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자. 필자는 무슨 자료를 권할 수 있을까? 전공자가 아닌 한, 인도 고전어 원전을 권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역사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담은 돈벌이용 출간물들을 추천하는 것도 마뜩잖다. 게다가 본인이 이미 성인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주’ 대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책을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고전학자들의 훌륭한 학술연구 저술을 권하자니, 비록 영어나 일본어로 쓰인 책이라고 해도, 전공자가 아닌 독자들에게 읽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이왕 요가를

예로 들었으니,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해 보자. 우선 사람들이 특정한 몸 동작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을 통해 건강해지고 나아가 몸 속의 잠재력-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쑤달리니’(Kuṇḍalinī)라고 부를 것인데-을 키워서 해탈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흔히 우리가 ‘요가’(yoga)라고 부르는 기술이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타요가’(haṭhayoga)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든 요가가 바로 하타요가인데, 이 하타요가는 빨라야 11세기, 대개는 13세기 이후에야 기록에 나타나는 수행을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이 ‘하타요가’라는 것이 인도철학 개론서들에서 흔히 대표적인 인도의 고전 철학전통(śaḍḍarśana) 중의 하나로 소개되는 빠탄잘리의 요가철학(pātañjalayoga)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전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요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묻는 상황이 필자에게 다시 닥친다면 필자는 이 책의 3권 770쪽 이하에 있는 「Hatha Yoga」 쪽지를 읽으라고 권하겠다. 열 쪽 정도의 영어 텍스트라면야 본인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독서이니만큼 흥미와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읽어 보고 나서 자신의 관심에 맞는 정보를 찾았다고 느껴진다면 앞서 읽은 항목의 앞뒤에 자리잡은 「Rāja Yoga」나 「Modern Yoga」 쪽지를 읽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보다 넓은 시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책 안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교차언급을 따라 더 많은 자료들을 읽고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각 쪽지들에 제시되어 있는 읽을 거리 목록에서 재미있는 자료들을 찾아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백과전서류의 출간물들이 갖는 장점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형식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과 필자선정 그리고 편집 작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가 논의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를 식자층이라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짧고 명료하게 제시해 주는

읽을거리, 바로 이것이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구하기 어려운, 인도문화 전반에 관한 자료인데 그러한 이제까지의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바꿀 만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도학 관련 자료들이 보여주는 불만스러운 사정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인도가 다언어, 다민족, 다종교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수많은 지역적 언어의 차이들,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다양성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인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개괄적인 서술을 줄 수 있는 한 개인을 찾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정에 보태어 또다른 사정이 있다. 바로 인도의 고전들이 현재까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인도의 고전들 중에서 독자들이 구해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간되어 있는 경우는, 인도 고전의 방대한 양을 고려한다면, 제한된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출간된 출판본의 경우라고 해도 그 원전과 연관된 필사본들의 현황이 파악된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로 들었던 요가 전통에 대한 연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누군가 하타요가에 대해 인도학 전문가에게 묻는다고 해도 그 전문가는 하타요가의 뿌리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고, 요가강사 정도의 식자층이 이해하기에도 어지러워 보이는 탄트라(tantra)전통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데, 한국의 요가강사라면 아마도 불교 탄트라에 대해 듣고 이해하는 바에 따라 인도의 역사적인 현실과는 상당히 먼 탄트라를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난생 들어본 적도 없을 까울라(Kaula)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타요가를 설명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런 설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는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하자면,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요가학원에서 배우는 요가를 규정하는

주된 고전 텍스트는 『하타요가쁘라디피까』(Hāthayogapradīpikā, 하타요가를 [밝히는] 등불)라는 문헌이다. 그런데 필자를 포함해서 인도고전학 분야 연구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하타요가의 역사적 근원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들을 필사본으로—왜냐하면 출간된 적이 아예 없는 자료들이니 말이다—직접 구경이라도 해 보았을 것인가?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수련방법이 역사적으로는 서로 상반된 측면이 강한 전통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체계라는 사실과, 또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모든 요가강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문으로서 인도의 종교나 수행전통에 접근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고급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출간되지 못한, 그리고 그것이 발굴되었다는 사실마저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일차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계 학계에도 결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세부 분야의 학술적인 작업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파악하고 있는 최신의 정보이자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모두를 위해 의미심장한 일이다. 믿을 만한 전문가적 정보를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짧게 제시한다는 과제는 결국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현실에 구현해 낸 것이 바로 본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이다.<sup>1)</sup>

신뢰할 만한 고급정보를 제공할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또 모으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독자들이 읽을 만한 형태로 글을 쓰도록 만들고 그

1) 1권, p. xlii: “The *Encyclopedia* aims at a balanced and even-handed view of Hinduism, emphasizing that Hinduism is both a conglomerate of regional and local religious traditions as well as a global world religion. Hinduism is both an ancient historical tradition and a living tradition flourishing in the contemporary world, ...”

러한 글들을 일관된 형식으로 편집하고 제시된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한 묶음으로 제시하고 각 쪽지들 간의 교차언급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니,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다. 이러한 과제라면 상당한 정도의 편집 역량을 가진 출판사가 나서야 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전문가들에게 원고청탁을 할 수 있는 편집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바로, ‘브릴’(Brill)이라는 출판사의 이름을 붙여 출간되었으며, 노르웨이 베르겐대학(University of Bergen)의 야콥슨(Knut Axel Jacobsen)이 총편집을 맡은 5권으로 이루어진 위의 책이다. 1683년 설립 이래 긴 역사 속에서, 인문학과 사회학 연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구축해 온 브릴(Brill)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부터 이 책이 주는 인상은 강하고도 남는다. 물론 필자에게는 이 출판사의 이름이 곧 개인 독자로서는 살 수 없는 가격을 암시한다는 강한 인상이 함께 느껴지지만 말이다.<sup>2)</sup> 현재까지 출간된 3권까지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이렇다.

첫 권의 앞부분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egions and Regional Traditions”(pp. 3-378)라는 제목 아래에서는 각 지역별 문화전통의 차이를 서술을 하고 있다. 그 안에는 ‘Historical South Asia’라는 이름으로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포함되어 있다. 제1권의 후반부는 현재의 인도종교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신들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다. 크리шна(「Kṛṣṇa」, pp. 605-619)나 쉬바(「Śiva」, pp. 741-754)처럼 익숙하게 알려진 신들은 물론이고 남부 따밀(Tamil)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무루간(「Murugaṅ」, pp. 637-646)에 대한 서술도 들어 있다.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신들에 대한 서술이 모두 개별적인 신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데, 「Vedic Gods」 항목이나 「River

2) 현재 웹사이트(<http://www.brill.com/brills-encyclopedia-hinduism-volume-one> 2012년 11월 30일)에 제시된 가격은 1권 한 권이 249유로/346달러이다.

Goddesses」 항목은 항목의 구성에서부터 편집자와 서술자들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항목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어떤 신들을 베다의 신들이나 강의 여신들 항목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집합적 항목을 설정해야 하는 분명한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sup>

2권에서는 ‘Sacred Texts and Languages’(pp. 3-323) 장에서 종교적인 문헌들에서부터 점성술과 의학 문헌에 이르는 방대한 문헌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인도문헌사’라고 부를 수 있을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 뒤로 제시되는 제사의식에 대한 대목들에서는 실제로 행해지는 의식들에 대한 설명들뿐 아니라 그 역사적인 연원이나 여러 변형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한국의 대승불교 전통에 익숙한 독자들이라면 특히나 「vratā」, 「pūjā」, 「yajña」 항목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현대 한국불교와도 닿아 있는 인도종교와 연관된 난해한 개념들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사적인 내용을 담은 대목들이 따로 상정되어 있어 인도예술사나 건축 혹은 인도 희극이나 무용 그리고 보태어 영화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2권의 뒤쪽에 자리잡은 ‘Concepts’(pp. 671-884)라고 제목이 붙여진 부분인데, 여기에는 인도의 정신사를 파악하는데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Ahimsā」(pp. 675-680), 「Ātman」(pp. 689-693)은 물론이고 「Brahman」(pp. 724-729), 「Mahābhūta」(pp. 806-818)에서 「Time and Destiny」(pp. 870-876)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단행본 분량의 서술을 요구할 만한 목직한 테마들이 언급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3권은 ‘Society’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카스트의 문제나 가족 혹은 씨족 집단에 대한 항목들 그리고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항목은 물론 왕권이나

3) 예로 강가(「Gaṅgā」, pp. 571-577)와 사라쓰바띠(「Sarasvatī」, pp. 725-732)는 개별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정치, 경제와 연관된 항목 등등을 배치하고 있고, 그 뒤로는 ‘Religious Specialists’(pp. 217-280), ‘Religious Traditions’(pp. 281-628)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인도의 다양한 종교전통들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대주제인 ‘Philosophy’(pp. 629-788) 아래에는 개괄적인 인도의 철학전통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도철학 전반에 대한 쓸 만한 입문서의 역할을 해낸다. 4권과 5권은 아직 출간준비중이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문가적인 신뢰할 만한 정보이면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일 것이다.<sup>4)</sup>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에서 선택한 방식이 바로 사전적인 항목배열이 아닌 주제에 따른 깊이 있는 서술이 가능한 항목배열 방식이다. 이 책에서 보이는 항목설정의 원칙은 한 이론에 따르는 체계적인 것보다는 참고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크게 배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권 서두에<sup>5)</sup> 원래 2권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한 꼭지와 3권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일곱 꼭지가 후속 권으로 미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체제가 갖는 중복적인 체제설정이 편집상의 유연성을 주는 대목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겠지만, 체계성이 떨어지는 항목설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자세한 사정을 밝히지 않으니 필자로서 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채택된 체제의 특성상 교차언급이나 중복설명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인데, 머릿말(Introduction)에 예고된 대로<sup>6)</sup> 알파벳 순으로 나열된 색인이

4) 1권 서문의 첫 줄에서 편집자는 “The goal of the Encyclopedia is to present the latest scholarship on all aspects of the Hindu religious traditions”라고 이 책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5) 3권, p. xxviii.

6) 1권, p. xlii.

마지막 권에서 마련되고 나면 이러한 약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전반적으로 이 책의 활용도는 현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색인이 단지 물리적인 개념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동음이의어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 용례들을 구분해 준다거나 혹은 주된 설명이 주어지는 대목을 별도로 표시해 주는 정도의 작업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논평자는 기대해 마지 않는다.

‘Hinduism’이라는 말은 인더스강을 가리키던 고대 베다어의 ‘Sindhu’에 대한 이란식 발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따라서 어원적으로는 ‘인더스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슬람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종교로서의 힌두교를 가리키는 말로서는 이해될 수도 그리고 정의될 수도 없는 다양한 문화현상 모두가 이 말에 의해 지칭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은 분명 종교로서의 힌두교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와 맥락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이 애초부터 견지하는 다원적 접근방식<sup>7)</sup>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적 지향성 자체가 이 책의 유용성을 담보하는 근본적인 실마리가 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항목설정의 원칙들도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항목의 서술에 대한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려야 하겠지만, 개별 항목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질적인 차이가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예를 들었던 요가에 관련된 항목들에 집중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3권 745-769쪽 「요가」(Yoga) 항목, 특히 빠탄잘리의 요가(pātañjala-yoga)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요가쑤뜨라』(Yoga-

7) 1권, p. xl: The *Encyclopedia* follows a pluralistic approach, embracing the greatest possible diversity, plurality, and heterogeneity.

sūtra)와 『요가바샤』(Yogabhāṣya)가 실제로 별개의 텍스트가 아니고 하나의 텍스트였으며 쑤뜨라만 따로 전승된 것(sūtrapāṭha)은 후대의 전통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 등등은 항목을 기술하고 있는 필자 쉬라이너(Schreiner)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약간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Pātañjalayogaśāstra』<sup>8)</sup>의 첫 부분, 「Samādhipāda」의 첫 문헌 비평판본이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이 자료를 몰랐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데, 서술의 면에서 너무 전문적이라 판단되어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판단이었을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뒤따르는 「Haṭha Yoga」(pp. 770-781, Mallinson 집필) 쪽지에도 이 자료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하타요가보다 더 후대의 근현대 인도 요가전통의 발전을 기술하는 「Modern Yoga」(pp. 782-788, Singleton 집필) 쪽지에서는 2006년에 출간된 마스(Maas)의 문헌 비평판본 자료가 언급되고 또 인용(p. 783b)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저자들이 나누어 맡아 서술하는 백과사전적 저술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쪽지를 맡은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참고문헌과 별개로 읽을 거리(further reading)가 따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형식적인 편차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항목들이 독자들에게 유용한 참고문헌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는 2권 822쪽 「Māyā」 쪽지의 참고문헌 목록을 보면 이 개념에 대한 단행본 자료<sup>9)</sup>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독일어 자료인지라 제외시켰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요가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8) 빠탄잘리(Paṭañjali)가 썼다는 『Yogasūtra』와 바씨(Vyāsa)가 저술했다는 『Yogasūtra-bhāṣya』는 사실 한 텍스트였을 것인데 분리되어 전승되다 보니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 ‘Pātañjalayogaśāstra’라는 명칭이 따로 사용된다.

9) Berthold Hager. *Die Entwicklung des Māyā-Begriffes im Indo-Arischen*. Freiburg i. Br.: Berthold Hager 1983.

항목은 당연히 「Tantras」(2권 pp. 168-181) 쪽지이다. 최근 세계 인도학계에서 가장 큰 변화 내지는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분야로 꼽을 수 있는 판뜨라 분야에 대한 소개이니만큼 충실한 최근 논의의 소개와 관계 자료의 소개를 기대하게 된다. 이 항목을 서술하고 있는 스민(Smith)은 상당히 균형잡힌 서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판뜨라 분야 연구의 선구자이자 이제는 대가라고 불려야 할 샌더슨(Sanderson)의 연구와 그가 주장하는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입장, 즉 사이바판뜨라(Saiva-tantra)가 불교판뜨라의 연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이러한 주장과 연구들이 망라된 2009년의 논문을<sup>10)</sup> 적절하게 소개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을 소개하는 맥락이 과장되어 있지 않지만, 진지한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그 의미를 분명히 읽어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보인다.<sup>11)</sup> 「Kashmir Śaivism」(3권, pp. 362-377, Lawrence 집필) 쪽지 안에는 ‘Contemporary Revivals’ 항목 안에 근현대 사이바전통의 부활에 기여한 주요 인물들과 그 후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짧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까쉬미르 사이바 전통에 대한 상당량의 자료들을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Muktabodha Indological Research Institute<sup>12)</sup>이 남인도의 Swami Muktananda(1908-1982)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이 맥락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점도 눈에 들어온다.<sup>13)</sup>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것 자체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자료들이 누적되고 활용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것이 이 책과 같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는 정보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10) Shingo Einoo가 편집한 책의 41-350쪽에 실려 있는 A. Sanderson의 논문 「The Śaiva Age - The Rise and Dominance of Śaivism During the Early Medieval Period」. 이 300쪽이 넘는 단행본 수준의 작업은 분량 면에서만 주목할 만한 논문이 아니다.

11) 2권 171쪽을 보라.

12) <http://muktalib5.org>.

13) 3권, p. 374b.